할머니 생선 먹기식 인간관계

(엡6:1~9)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할머니 생선 먹기식 인간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고인이 되신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함경도에서 태어나시고 만주에서 사시다가 피난을 나오시게 되셔서 제가 군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계시다가 군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기억나는 게 할머니의 생선 드시는 방식이에요.
보통사람이 생선을 먹으면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발라서 먹게 되잖아요?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생선살을 다 발라놓은 채로 요리를 해서 생선뼈를 다시 발라야 되는 수고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교적 뼈가 없는 고등어 같은 것도 아가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뼈가 있기 때문에 뼈를 골라내야 되는데, 갈치같이 뼈가 많은 생선들을 저희 할머니는 생선을 접시에 놓은 채로 젓가락으로 살을 따로 떼서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생선이든지 뚝뚝 잘라서 뭉텅이를 입에 넣으시고 우물우물 하시면 마술같이 깨끗한 뼈가 입에서 다 나옵니다, 살은 살대로 다 들어가고.
항상 생선을 그렇게 드십니다, 갈치 같은 것은 끝부분에 뼈가 삐죽삐죽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을 뼈에서 발라서 드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뚝 잘라서 입에 넣으시고 우물우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혀는 요술 혀에요, 입에 들어온 뭉텅이 생선을 우물우물 씹으면서 혀로 훑어내시면 싹 벗겨지고 뼈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뼈 모아서 말려가지고, 원시인들이 하는 것처럼 바늘로 써도 될 정도에요,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이 할머니 생선 먹기 식 인간관계란 무엇일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점이 눈에 띠고 나쁜 점이 눈에 띠잖아요, 또 내게 이득이 될 만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할머니가 생선을 뼈째로 입에 넣으시듯이 그렇게 사람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통째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관계하는데도 뼈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리는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 단점 가리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서 관계를 하는데도 그 사람의 단점이 내게 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내가 특별히 더 의지하는 것도 아니면서 인간관계가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할 때 그 아까운 생선살을 버리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많이 발라먹으려고 애쓰다보면 뼈가 같이 들어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캑캑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관계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져가면서 아주 지혜롭게 사람을 관계한다고 하지만 목구멍에 걸립니다, 캑캑거려요.
통째로 입에 넣고 혀로 훑어내셔도 하나 걸리는 게 없는데, 그저 살만 집어넣겠다고, 이득이 되는 것만 챙기겠다고 해도 캑캑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라는 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장단점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응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된다, 이거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인간관계가 진행되는 영역은 가정과 직장이에요.
이 두 영역에서의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상사와 부하직원, 옛날로 말하면 종과 주인.
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전제가 있어요.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바울이 해주신 말씀, 에베소서 5

장 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전제는 계속 유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방식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복종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는 순종함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주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상전이 하인을 볼 때,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억누르지 않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전도 자기 밑의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자, 그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또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안에서 훈계로 양육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말씀처럼 여겨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기억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오늘 본문과 더 매치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고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하십니다.
즉,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비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시고 딸과 어미가 불화하게 하시고,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 안 맞아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게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딸은 어머니와 마음이 멀어져서 불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충돼 보이는데 도대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또 상식적인 면에서도 이 본문에 대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이고 맞다고 인정합니다마는 실천적인 면에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이면서 부모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가 믿지 않고 신앙과는 잘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내 믿음과 내 생각에는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소신에 의해서.
그냥 부모님을 무조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 무오설처럼 부모 무오설이라도 마음에 새겨 넣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뉴스나 해외토픽을 보면 정말 잘못된 부모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부모를 보면서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데 무슨 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에 대답을 한 번 해본다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다 효도의 뜻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유교에서 말하는 동양의 효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사도바울이 말씀하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부활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부터 승천해서 지금 보좌 앞에 계신 그 자리까지 주님만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공자도 못 만든 공간이고,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못 만든 공간, 알렉산더도 칭기즈칸도 못 만든 공간입니다.
주님만이 만드신 그 공간에 우리 마음이 머무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이 세상의 혈육에 대해서도 죽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화하다는 내용의 참 뜻입니다.
그래서 혈육인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죽는 거예요, 마음이 내 몸으로 만난 세상 전체에 대해서 죽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세상 밖에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놓으신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늘과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머무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서, 내가 마음이 육체에 갇혀있으면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니고, 육체 밖으로 나가서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이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모자라거나 훌륭하거나 상관없이, 그분들이 이 육체로 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나'의 부모님이 된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주님의 뜻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심에 있어서, 그분들이 세상이 볼 때는 모자라는 부모든 훌륭한 부모든 상관없이 나의 부모님에 되게 하신 게 주님이신데, 그분들이 나의 부모가 되신 일에 있어서 주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모자라는 부모님이라도, 못 배웠고 또 성격이 괴팍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식을 안 돌보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고 그분들이 나의 부모 되심에 있어서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옮겨지고, 내 마음이 그런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모자라는 게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있는 통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생선을 뼈가 있는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음으로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통째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상한 것은 부모님의 모난 점들이 부모님의 찌를 수 있는 점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님을 보고 성격이 괴팍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는 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모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에 얹혀서 부모님을 통째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부모님의 어떠한 단점도 내게 가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부모님의 치부 역시 내 마음에 감싸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부모님의 단점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다 '예, 예!' 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의무나 부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신비한 경험입니다.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묘한 거예요,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주 안에 마음이 머물면서 부모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모든 단점이, 외람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도 무언가에 고집을 부리시는 걸 보면 마음에서 귀엽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안 부리시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집 부리시는 걸 맞춰드리게 됩니다.
이상한 신비가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님에 대한 관계, 은혜일 수 있고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녀에 대한 관계나 상전과 종에 대한 관계는 시간이 모자라니 내일 계속하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계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 할머니 생선 먹기 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선택하여주셨기 때문이고, 주님께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됨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가 내 잘못이지 부모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그릇되거나 잘못 될 일이 없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분들이 내 부모가 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나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반성이 끝나게 됩니다.
부모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모든 시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된 말씀을 하더라도 그 부모님 자체를 통째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모셔 들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주님께서 부모님의 잘잘못을 내 안에서 다~ 그 부드러운 섭리의 혀로 발라내십니다.
내 인생에서 발라내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걸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장수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연수를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얼마나 인생의 시간들을 꽉꽉 내용적으로 채웠느냐 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내용적인 장수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사셨지만 가장 완벽하게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 인류 중에 제일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120살까지 산 모세, 175세까지 산 아브라함이 장수한 게 아니라, 33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가장 장수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내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잘되리라' 이 세상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님에 대한 관계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못나 보이고, 세상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부모님이라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확~ 뚫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뚫려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뚫려나가는 겁니다, 사업에서 자녀교육에서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에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장수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될 것이다.

부모님은 하나님 뜻의 결정체입니다.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면 내 눈에 그분들이 어떻게 부족하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설령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그분들을 통째로 받아들이시고 부모님으로 인정하시고 위로 치켜세울 때, 주님께서 부모님의 모든 모자라는 점은 주님의 그 부드러운 혀로 다 발라내셔서 내게 어떤 뼈로도 작용하지 않게 끔 인도해 가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모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공경하고 순종해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안에 마음이 머물기만 한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할머니 생선 먹기 식으로 부모님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정체로 알고, 모셔 들이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